

# 신행수첩

## 겨레사랑 나라사랑 '원화·화랑 모임' 발대

한민족으로서 나라와 전통을 사랑하고 주체적 문화가치관을 계승, 발전시킬 원화와 화랑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사)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총재 박현성)가 주최하고 교화연합회 인천지부가 주관하는 "원화와 화랑들이 모임" 통일 대축제가 오는 26일 오후 5시 인천시민회관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이날 행사에서 8백여명의 초·중·고생은 '원화와 화랑들의 모임' 발대식 기념법회를 갖고 통일조국과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청소년상을 세우자는 다짐을 한다.

이어 열리는 사물놀이, 대금 연주, 가야금병창 등의 전통문화 축하공연은 원화와 화랑들에게 사라져 가는 우리얼을 익히게 하고 주체적 문화가치관 형성을 통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행사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게 된다.

'원화와 화랑의 모임'은 앞으로 매월 정기모임과 문화유적지 답사 및 국문순례 등을 바쁜 청소년문화정답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 원화와 화랑의 긍지를 느끼고 싶은 청소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02)735-8165

## 참선 통해 나 찾는다 26일부터 동국좌선회

일상을 벗어나 산사의 생활을 체험한다는 것, 거기에다 선의 진수까지 맛볼 수 있다면 가히 상상할만하다.

동국대학교 교직원들로 구성된 동국좌선회(회장 신용태교수)는 26일부터 1박2일간 국내 유수의 선선도량 예산 수덕사에서 동계 참선 정진수련회를 갖는다.

가야산 남쪽 줄기 덕유산 중턱에서 느껴지는 고찰의 정업 속에 올리는 예배와 참선수행은 50여명의 좌선회 회원들에게 자신속의 부처님을 찾게 해 줄 것이다.

선종을 크게 떨친 만공선사

## '세계일화' 의미 되새겨

만공선사 48주 추모법회 수덕사서



○만공선사

근세 선지식 가운데 만공선사는 가장 당당한 선사였다. 일제 때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본산 주지회의에서 "총독부는 불교계에 간섭치 말라"고 일갈하던 만공선사는 한국불교선맥의 중흥조이다. 오는 21일로 만공선사 열반 48주년을 맞는다. 수덕사와 정혜사는 선종을 떨친 스님의 유언을 기려 추모법회 및 대례를 개최한다. 수덕사는 21일 대웅전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이어 22일 정혜사는 만공선사의 선지를 받드는 추모 대례를 올린다. 수덕사를 돌아보고 정혜사로 오르면서 만날 수 있는 마복석굴과 만공암, 기암괴석과 숲이 어우러진 덕유산에서 '세계일화'를 주창한 만공선사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0458)37-6565

## 탄허스님의 학덕기려

제단설립 10년 화엄경간행 20년



○탄허스님

탄허스님의 훈장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짙게 후학들에게 다가온다. 스물 두 살 때 오대산 상인사로 출가, 3년간의 묵언과 15년간의 산문 불출 등 치열한 정진을 했던 스님은 조계종 초대 역경원장을 지내며(화엄경) <능엄경> 등 많은 경전을 번역 불후의 수행력을 보여왔다.

탄허스님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탄허문화재단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고 스님이 번역한 화엄경이 출간된지는 20년을 맞았다. 이 같은 뜻을 기리기 위해 오는 20일 대전 자광사에서 대법회가 열린다.

이날 법회에서는 각성스님이 「화엄경 간행 출판의 의의」를 강변조 교수가 「탄허불교의 진로」를 주제로 강연도 한다. (042)822-9219

성적관리까지 철저하게 책임지도록 예정이어서 재학생들의 기대가 크다. (02)734-8179

## 명찰 찾아 통일발원 27일 신록사등 참배

경기도 여주는 군내에 신록사와 고달사지 세종대왕릉(영릉) 및 효종이 묻힌 영릉이 있어 문화유적의 고도로 불린다. 최근에는 도예촌과 목아박물관이 조성돼 문화유적답사가 줄을 잇는 곳이다.

통일원림남북불교순례단(단장 고준환)은 오는 27일 제27차 명산대찰순례를 동국대박물관 학예연구원 이기성씨와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의 안내로 이곳 신록사와 목아박물관을 찾는다.

통일을 염원하는 불자라면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으며, 27일 오전 7시30분 양재동 서초구민회관에서 출발한다. (02)390-5220

## '우리도 악순 되게 하소서' 웅공사 악사여래불 점안

중생의 모든 병고역난을 치유하기 위해 또 한번의 악사여래부처님이 모셔진다.

경남 양산 해동 웅공사(주지정암)는 12월 7일 악사여래부처를 조성 증명법사 고산스님과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안식을 봉행한다.

웅공사측은 점안식에 참석하는 신도들을 위해 다양한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불자들의 동참이 기대된다. (0523)361-3165

## 관음 성지 의상대 내년봄 새모습 복원

불자에게는 관음보살의 성지로, 국민에게는 동해안 최고의 명승지로 인식돼온 낙산사의 의상대가 해체돼 불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다행히 양양군과 낙산사는 양양군 불자들의 신심과 계속되는 청원에 힘입어 11월 설에 착수, 해방이 되는 내년 3월 본격 공사를 추진키로 해 낙산사 신도들과 군민의 환영을 받았다.

낙산사와 양양군에 따르면 11월 설에 들어간 의상대는 철거된 정자각의 사용가능한 부재는 그대로 사용에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예정이다. 또 의상대 주변환경은 종합설계로 현재 철거간격을 석재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의상대(義相臺)는 신라 중기 한국 화엄종의 시조인 의상대사(625~702)가 671년 낙산사(洛山寺)를 창건하고, 참선에 열중한 곳이다.

동해안 최고의 명승지로 불자들의 사랑을 받은 의상대는 1926년 7.5평의 육각형 정자로 건립된 뒤 36년 폭풍우로 붕괴된 것을 37년 중수했으며, 지난 74년 도 유형문화재48호로 지정됐다.



○만공선사의 선종이 남아있는 수덕사에는 공부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와 개화기 여류시인이었던 김일엽스님의 불심이 묻힌 이곳 덕숭총림은 돌아오는 회원들의 마음을 맑은 향기로 가득 채워주게 될 것이다. (02)280-3015

## 화요일 밤의 만남 청년여래회 「문학 강좌」

날로 희박해지는 공중제외의 삶에서 개인주의적 삶이 모습으로 변해가기 쉬운 모든 이에게 올바른 삶의 가치의식과 사상을 제시하는 강좌가 열리고 있다.

청년여래회(회장 박진우)는 지난 8일부터 매주 화요일밤 명륜동 청년여래법당에서 '문

학강좌'를 마련하고 있다. 해법스님, 정찬주, 김홍호씨 등의 불교와 문학에 대한 주제 강의가 펼쳐지는 '문학강좌'는 이에 관심있는 청강자들의 지적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12월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문학강좌'는 불교와 문학과 대중이 함께 하며 문화속의 불교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상도 제시하고 있어 새로운 인연의 마당이 되고 있다. (02)747-1902

## 불제자는 공부도 열심히 조계사 공부방 운영

불교학생회교사나 법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기를 바라고 있다.

조계사 학생회가 공부잘하는 불제자가 될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학생회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조계사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방을 운영키로 했다.

학생회 공부방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된다. 신청자의 성적순에 따라 10~15명 정도로 한 팀을 만들어 국·영·수 과목을 일주일에 각 1시간씩 2차례 공부한다.

학생회 출신 선배들이 지도 교사로 봉사에 나선 것은 학업



## 나의 수행일기

윤영자

<방송대 교수>

나와 불교와의 인연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다. 더 정확하게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였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신교육의 향유에 불타 동경할 기술계획이 외조부모님께 사전누설되자 파광 윤씨 3대독자 며느리로 서둘러 시집을 오게 된 나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원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나의 어머니는 시집을 온 후 아버님도 교회로 인도하려 했을 정도로 신앙이 강했다. 전통적인 양반의 가문을 이어오며 3대째나 독자만으로 가계가 유지되어 오던 윤씨 집안에는 집안망할 일 없도록 온통 노력했다 한다.



성경말씀과 장엄하고 감동적인 성가와 설교를 접하는 정례적인 재물이 있었음에도 주말이면 조계사의 대학불교연합회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설법을 귀담아 들었다. 그것은 유아시절의 종교적 체험을 쉽게 저버리지 못했던 데 연유할 것이다. 이 법회를 통해서 나는 귀중한 인연들을 만났다. 이때 들었던 설법들이 오늘날 나름대로의 불교관과 종교관을 정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미국에서 한국불교학을 학문적으로 정파하고 계시는 박성배교수와 이제는 고인이 되신 서경수, 이종익교수님, 원효사상을 숭배하시던 이기영교수님의 교리강좌와 인품이 고매하시던 서문각박사님의 설법이 내게 큰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청담, 성철, 일타 큰스님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농담중에 들려주시던 법담들, 범정스님과의 산행, 또한 취사도구 둘러매고 높은 산을 힘겹게 넘으면서 정경계 주고 받은 대불전 범우들과의 불교교리들...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내가 비록 사물에 정기적으로 둘러 법회참여는 못할지언정 나름대로

## 대학때 들은 법문 내 삶의 거울

구식 예법에 젖어 5대선조를 봉사하는 자손 귀한 집안에 당시로서는 귀찮은 예수 믿음이 빠진 새 며느리와 귀한 아들마저 전도되어 버린 현실과 딸만 내리 넷을 낳고 아들 두기를 학수고대하게 된 절박한 상황은 과감한 결단을 강요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여기에서 나의 어머니는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개종을 결행하셨다. 그 이후 어머니의 불자로서의 신명은 거의 스님생활에 가까웠다고 말할 만큼 철두철미했다고 생각된다.

집에는 거의 매일 스님들이 왕래하시며 숙식을 함께 하시고 동안거 하안거 등 참선 생활에도 동참하셨다. 교동이 불연했던 시절 그리고 아버님의 근주지를 따라 찾은 이사를 했으면서도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나는 절에 자주 다녔다. 그 경우 심부름의 목적은 주로 가정 화평과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어머니의 정성의 표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저런 환경속에 어릴적부터 나의 종교는 자연히 교리는 몰랐는데도 의식행사에 전속해져 불자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문득한 심상을 가진 불자가 된 계기는 대학시절때문이었다.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이화여대에 입학하여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도에 따르려는 사교방식과 생활태도를 갖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이 있다. 당시 일요일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씩 나뭇타에서 폭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봉은사에서 온 통일 정진하던 일이다. 나무를 건너는 풍경과 배발을 지나고 소나무 오솔길 고개를 넘어 봉은사에 이르는 길이 오늘날은 웅장한 고층빌딩과 소란한 경적소리에 묻혀 자취가 없어졌으나 생각할수록 풀밭만 짙은 시절 청춘을 살지우게 해준 상념의 길이었다. 단아한 응모에 열정과 패기에 넘치는 공덕큰스님의 가슴에 와 닿는 설법은 변화하는 시대에 젊은 불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불교를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를 위한 어떠한 소명의식까지 일깨워 주셨다.

한미일로 이와같이 반복되던 4년에 달하는 대학생활 동안의 대불전 법회 참여와 수행정진 생활은 3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고된 생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심지를 심어주었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 생활 속의 불교 ⑥

# “쏘가리가 쏘가리 마음인 채로 있는 한”

세상을 살피보면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쉼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 새는 새대로, 들짐승은 들짐승대로 온갖 벌레와 미물들도 나름대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모두가 좀더 나은 생활을 위한 몸짓이다. 그렇게 모든 생명에게는 차원의 높낮이는 있다 할지언정 마음이라는 게 있어 그 마음이 육신을 끌고 다닌다. 마치 움직이는 자동차에 주인이 타고 있듯이.....

인간도 보다 나은 상태를 향해 쉬지 않고 움직인다. 잠시도 한 곳에 딱 못박히듯 머물러 있는 경우란 없다. 살아 있는 한은 그렇다. 물론 잠시도 쉬지 않는 가운데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모두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다.

진화란 마음의 차원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마음의 차원이 달라지면 육신의 기능까지도 모양새도 달라진다. 마음의 설계에 의해 밖으로 드러난 현상이 곧 창조다. 고로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마음을 내고 움직이는 것은 창조와 진화의 연속과정이다. 거기에 마음의 차원이라 고통·범죄·감옥이 기다리는 퇴화의 과정도 있다. 그러므로 쏘가리가 늘 쏘가리 마음인 채로 있는 한은 진화는 멈춘다. 인간의 차원도 그렇게 결정된다.

불법의 · 생활화 · 현대학 · 세계력



“고객의 만족은 우리의 생명! 기술은 최고, 최고 기술은 정성! 한마음으로 성실하게!”

견인차량 24시간 항시 대기  
정확한 진단, 신속한 처리  
섬세한 안전점검  
그리고 보험업무처리까지

동광자동차공업사 || 전화:(02)464-1472 464-0882  
성동구 화양동 151의 12 || 팩스:(02)469-1472